

사회

변수 많은 대입 정시모집

21일부터 접수...신중 지원해야

수험생들은 21일부터 시작되는 201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원서접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시모집은 수능 제도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인데다 중·상위권 수험생을 중심으로 하향·안정 지원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정시모집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 나, 다 군별로 1번씩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 만큼 적정·안정·소신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만큼 수험생들은 1~2점이라도 더 유리한 대학과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치밀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본인의 성적, 본인의 희망, 현 위치와 조건 등을 두루 고려해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재수생 등 올해 꼭 합격해야 하는 경우라면 합격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한편 '가, 나'군에 집중적으로 몰린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가, 나'군 중 한 곳은 꼭 합격하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군별 전형방법의 차이에 따라 동일학과에서도 군별 경쟁률, 합격점수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전략을 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래를 위한 충전 퍼포먼스 지난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열린 '광주 인어이불만축제'에서 청소년들이 침대위에 누워 TV를 켜는 퍼포먼스 게임을 하고 있다. 광주창의예술학교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인어'라는 개념을 미래에 대한 충전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둑 붕괴위험 경고 무시 공사강행 결국 농경지·염전 42.9ha 폐허로”

광주 특성화高 928명 탈락

일반계고 진학 불가피...진로·진학지도 고심

인기학과를 제외하고 광주지역 중학생이 대부분 진학할 수 있었던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의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1000명에 달하는 특성화고 진학 탈락자에 대한 진로·진학지도가 과제로 부각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특성화고 12개교가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전형을 모두 마무리한 결과 특성화고에 입학하지 못하고 탈락한 중3 학생이 928명에 달했다. 올해 총 모집인원 4312명에 5240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이 1.21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시교육청은 정부, 기업체의 특성화고 졸업생 특채 등에 힘입어 특성화고 진학희망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형에서 석차백분율 1.9%인 학생, 석차 20% 이내의 학생 22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탈락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일반고에 직업교육 과정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고교에서도 진로·진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차별 없이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예요. 염전 주민들이 임시 물막이가 너무 낮아 위험하다고 시공사에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사고를 우려한 것은 송암 방조제 일대는 조석(潮汐)의 차가 커서 사리(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을 때) 때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다. 실제 이 일대는 사리 때면 다른 지역 바다에서 6시간 동안 차오를 물이 3시30분 만에 밀려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올해는 지난 여름 3차례 사이에 조성된 이후 염전에 종사하는 10여가구 주민들이 수차례 시공사를 찾아가 둑이 최소 1m이상 높아져야

기 때문에 최소한 3년간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에 농경지 8.5ha와 염전 34.4ha가 피해를 입었다”며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고농도의 염수(鹹水)가 바닷물에 잠겨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소금 생산도 힘들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시공사와 영광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공사 측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와 달리 시행한 부분이 있어 결함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시공사는 “물막이가 만들어진 곳 이빨이 보니 지반이 약해 보강을 해야 했다. 군에서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아침안개주의,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초·중·고교 겨울방학 시작, 광주·전남 이번주부터, 겨울방학 기간은 초등학교 37~38일, 중학교 31~32일이다. 75일제 전면 시행으로 토요일에 휴업한 만큼 방학이 짧아졌다. 겨울방학 기간이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평균 2일, 중·고교는 평균 7일 가량 짧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롯데제이티비, 여행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무안출발/북경, 무안출발/상해, 무안,전남출발 일본, 무안출발/방콕, 광주출발/해맞이상품, 유럽, 동남아, 미주/남태평양, 일본, SIT

광주전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가이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전남권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